

# 3월 광주·전남 신설법인 사상 최대

## 광주 208개·전남 194개...전년보다 30.8%·19.8% 급증

3월 중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새로 생긴 법인은 각각 208개와 194개로 총 402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광주 159개, 전남 162개보다 각각 30.8%, 19.8% 급증한 수치로, 2003년 신설법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 특히 광주는 월간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200개를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각각 52개와 50개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도 34개로 크게 늘었다.

전남은 농업·임업·어업·광업이 38개, 건설업 33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운송장비 24개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아파트 분양 시장과 전세난에 따른 전세 및 임대 수요 증가로 부동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지역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붕괴와 협력업체들의 부도로 업체수가 크게 줄어든 이후 반사적으로 올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3월 중 신설법인 수가 5756개로 월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5%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11.5% 감소했으며 건설업도 9.4% 줄었다.

지역별로는 울산(35.1%), 광주(30.8%), 제주(27.1%) 등 9개 시도에서 법인이 늘었으며, 대전(15.0%)과 대구(14.6%)를 비롯한 8개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사업주의 법인 설립이 지난해보다 각각 17.0%, 16.1%씩 증가해 장년층의 창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세운 신설법인의 수도 1천279개로 3.9%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달콤한 시간을 판매합니다”

광주신세계 (대표 조창현) 지하1층 와인매장에서는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 가족·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샴페인 및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마스카롱 세트가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할인되고, 벨타스 아이스 와인도 4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노후, 전문가에 물어봐”

### 금융원 28일 서민 금융상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오후 여의도에 있는 금융원 2층 강당에서 한국이 지분주와 함께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10개 기관의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사금융 피해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개인워크아웃 ▲노후설계 등을 상담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금융원(www.fss.or.kr),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한국이 지분(www.egloan.c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 달에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연 5.2%(10년 만기)~5.45%(30년 만기)이며, 대출 초기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은 연 4.8%(10년 만기)~5.05%(30년 만기)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최저 3.6%의 고정금리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설계형의 최저금리는 15일 자 코픽스 연동형 기준 4.36%이다. /연합뉴스

## 상호금융 대출 간간해진다

### 내달 '권역의 대출' 담보인정을 60%로 낮춰

농협, 수협, 신한,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까지 인정 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던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의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의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예외 규정이 권역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또 여러개의 신협이 공동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억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과 수협의 정관을 개정 고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 영암 봄배추 대만 간다

### 생산량 61% 증가...새 활로

하우스 봄배추가 대만으로 수출된다.

25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국내 배추가격(도매가격)은 지난해 상품 kg당 1375원, 1개월 전 1250원인 것인 25일에는 550원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폭등했던 배춧값 탓에 올해 나주와 영암 지역의 하우스 봄배추 재배면적은 크게 늘어 작년 대비 30% 증가한 4800ha에 달하며 생산량도 무려 61%가 증가한 25만3000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순부터 출하가 시작된 봄배추는 겨울 저장배추 끝물과 겹치면서 예년보다 2배 반 이상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산지가격 저지를 위해 새로운 판매 활로를 찾게 된 것.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삼왕농산과 영암 푸름채영농조합법인을 연결, 24일과 25일 배추 2컨테이너(34톤)를 대만에 시험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대만 현지 가격과 판매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측은 향후 대만 수입업체와 조건이 맞을 경우 100컨테이너(1700톤)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경 지사장은 “대만 수출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하우스 봄배추의 시장격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다”며 “해의 유력바이어를 발굴, 더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10년간 소득 통계로 본 삶의 양극화

### 자영업 상위 20% 소득은 55%↑...하위 20%는 54%↓

#### 봉급자도 상·하위 격차 갈수록 벌어져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20 대 80 사회'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결과, 세금·소득 통계만 놓고 보면 답은 '그렇다'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자영업자 소득, 상위 20%가 '씩쓸이' =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역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했다. 10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이 크

게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257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씩쓸이'했다.

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5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

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 월급쟁이도 소득도 '양극화' 심해져 = 양극화 현상은 개인사업자 예기만이 아니다.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3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상위 20%의 소득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 같은 부의 양극화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리확장과 '골목 상권'으로 불리는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내일 하남산단관리공단서 '채용박람회'

중견전문인력과 제대군인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위한 'New Smart 채용박람회'가 27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중소기업 20개사와 중견전문인력, 제대군인, 일반 구직자 등이 참가해

별면접과 상담을 통해 구인·구직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병행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온라인 채용박람회(http://myjob.jobkorea.co.kr)도 개최, 행사장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과 중견전문인력 및 제대군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www.oknwood.com  
日本産 히노끼(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아토피 치유 효과
- 비염·천식 치유 효과
- 쾌적한 심혈관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해충 방지 효과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 면역기능 증대 자연치유 효과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나무제작 전국·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www.chilman.co.kr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